

『종교와 문화』 제25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pp. 189-214.

퀴어신학과 관음신앙

김명숙*

- I. 서론
- II. 퀴어신학: 역사와 특징
- III. 퀴어 관점에서 본 관음신앙
- IV. '퀴어 보살'로서의 관음의 가능성
 - 1. 몸과 응신성
 - 2. 신성/인간의 이분법 넘어서기
 - 3. 본질과 경계를 해체하기
 - 4. 현세적 고통에 대한 맥락적 접근
- V. 결론

I. 서론

지난 수십년간 기독교 신학은 새로운 사상들의 유입과 함께 얹눌려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면서 다채로운 면모들을 드러내왔다. 해방신학의 기치 아래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신학, 흑인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우머니스트 신학, 장애신학, 제삼세계 신학, 레즈비언/게이 신학 등을 전통적 신학이 사실상 보편담론이 아니라 세계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배타적 규범들을 작동시키는 특정한 세력의 담론에 불과함을 폭로해왔다. 퀴어신학은 이러한 도전들의 가장 첨단에 있으면서 기존의 도전들에도 도전을 던지는 가장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신학이다.

퀴어신학은 흔히 성적 소수자들만을 위한 주변적 신학이거나 레즈비언/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신학 등을 종합하는 포괄적 범주의 신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물론 이들 모두는 전통적 기독교 신학의 이성애 규범과 동성애혐오 입장을 비판하며 레즈비언/게이, 바이섹슈얼, 트랜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스젠더 그리고 퀴어(LGBTQ)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기존 신학의 내용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내고자 한다. 하지만 퀴어신학과 LGBT의 신학들은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분명히 다르다. LGBT 신학들은 성적 소수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동등한 인정과 권리를 추구하므로, 비록 이성애에 근거한 분명한 구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남성 혹은 이성애자/동성애자의 이분법을 대체로 수용한다. 하지만 퀴어신학은 고정된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므로 그같은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메리 로우(Mary E. Lowe)는 레즈비언/케이 신학은 해방신학에서 연유한 것인데 반해 퀴어신학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퀴어이론에 빛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퀴어신학은 철학적 측면에서 퀴어이론을 받아들여 의미, 정체성, 젠더 등이 구성된다고 본다. 퀴어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주장하듯 섹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젠더는 수행적인 것일 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는 성적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퀴어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레즈비언/케이 신학에서는 예수와 억압받는 자들 사이의 연대가 강조되지만 퀴어신학에서는 예수 자체가 퀴어한 존재로 설명된다. 인간의 고정된 정체성을 부인하고 모든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수행적이라고 보는 퀴어적 입장에서는 예수도 퀴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¹⁾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 퀴어신학이 가지는 급진성과 통합성이 있다. 우선 정체성과 주체성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섹스/젠더, 섹슈얼리티 등의 문제에서 모든 고정된 범주들, 대립들, 경계들을 부정하므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퀴어 이론과 신학이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며 다양성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에 기초한 전통적 신학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이 발생한다. 담론이 겨냥하는 지점이 이성애 규범에 의해 배제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까지 포함하면서, 그리고 섹슈얼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확장되면서 전체 신학체계를 다 교란(disruption)하게 되는 것이다.

퀴어신학은 해방신학에 토대를 둔 페미니스트 신학도 결국 이성애 정체성에 바탕한 배제적 이론체계임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신학에도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 신학자였던 사람들이 퀴어신학으로 입장转变하는 현상도 나타났고,²⁾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페미니즘의 입장을 취

1) Mary E. Lowe, "Gay, Lesbian, and Queer Theologies: Origins, Contributions, and Challenge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48, No.1, 2009, pp. 49-58.

2)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Marcella Althaus-Reid, "The Bi/girl Writings:

한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의 퀴어신학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폐미니스트 종교철학자 그레이스 얀첸(Grace Jantzen)은 퀴어한 사고하기가 신학적으로 창조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로부터 “전통적 기독교의 스트레이트(straight)하고 좁은 경계들을 제거하면서 차이와 유동성, 굴곡성에 열려있는 신학”의 윤곽을 그려보기도 했다.³⁾ 기독교의 경직된 진리주장이 힘을 가진 백인남성들과 이성애규범성에 특권을 주면서 여성과 유색인들, 그리고 경직되고 좁은 규범의 기준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일탈자’(deviant)들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퀴어신학이 옹호하는 ‘퀴어함’(queerness)은 불교 관음신앙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원래 인도에서 남성이었던 관음이 중국에서 여성으로 성이 바뀌는 ‘퀴어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 여성관음은 트랜스젠더 관음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관음은 현재 미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또 조형물과 이미지 등에서 여성, 남성, 양성, 비남비녀(非男非女)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관음의 다중적 젠더는 이분법적 색스/젠더 체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부각돼 있다.⁵⁾

이 글은 퀴어신학을 참조하면서 관음신앙에 풍부히 잠재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은 독특한 퀴어적 특성들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특히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근거한 관음신앙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 그럼으로써 퀴어신학이 전통 기독교 신학에 도전하는 한편으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생명력을 주고 있는 것처럼, 관음신앙도 불교에 대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즉 관음신앙과 사상이 불교의 퀴어적 상상력을 자극해, 전통에 고착되지 않은 새롭고 유연하며 다양한 불교의 탐색과 구성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시도는 거꾸로 퀴어신학이 관음신앙과 사상을 통해 더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폐미니스트 신학이 종교간 여성들의 대화에 통로가 되었듯이,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에도 새로운 퀴어적 통로가

From Feminist Theology to Queer Theology,” *Post-Christian Feminisms*, eds. L. Isherwood and K. McPhillips, Aldershot, England: Ashgate, 2008.

3) 여기서 얀첸은 스트레이트를 ‘직선적인’과 ‘이성애자’의 중의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4) Grace Jantzen, “Contours of a Queer Theology,” *Literature and Theology*, Vol.15, No.3, 2001, p. 276, 280.

5) 일례로 다음 글 참조. Jin-Shiow Chen, “A Vision of Multiple Genders: Cross-cultural Learning in Asian Countries from Images of Kuan Yin and “Bishonen”,” *Journal of Cultural Research in Art Education*, Vol. 25, 2007.

생겨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 신학과 불교 교학은 신성이나 세계관, 인간관, 구원론 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섣불리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퀴어신학과 관음신앙의 비교가 아니라 관음신앙을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해 내기 위한 하나의 참조점으로서 퀴어신학을 사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시도에 힘을 주는 퀴어신학의 전복성과 급진성이다. 전통 기독교 신학에 대한 퀴어신학의 도전은 초월적인 유일신 신앙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가 있다. 마르셀라 알토스-리드(Marcella Althaus-Reid)는 유일신론을 “하나의 신, 하나의 왕국, 하나의 폐니스 담론”으로 표현하면서 경제적 독점과도 연관시킨다. 그리고 “퀴어신학은 독점들에 기원을 주는 개념적 토대들과 반대되는 곳으로부터 작동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⁶⁾ 이같은 퀴어신학의 파격성과 급진성은 불교같은 타종교들에게 ‘퀴어한 말걸기’를 자극하고 있다.

II. 퀴어신학: 역사와 특징

앞서 언급했듯 퀴어신학은 레즈비언/케이 신학과 다른 차원에 있지만 그것에 뿌리의 일부를 두고 있다. 즉 퀴어신학은 레즈비언/케이 신학의 균열들로부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움직임은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시작됐으며, 1969년 이른바 스톤월(Stonewall) 항쟁을 계기로 공적인 동성애자 권리운동으로 부상했다.⁷⁾ 이 흐름은 케이 운동, 레즈비언 운동 등으로 분화, 발전해 나갔는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당시까지 매우 모욕적으로 쓰이던 ‘퀴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해 정반대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1980년대가 끝날 무렵부터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애규범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적 소수자들이 부각되면서 더욱 각광받게 된다.

당시 학계에는 성적 정체성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

6) Marcella Althaus-Reid, “Outing Theology: Thinking Christianity out of the Church Close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9, No.27, 2001, p. 66.

7) 스톤월 항쟁은 뉴욕시 한복판에 있던 케이 바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급습하자 이에 반발해 생겨난 동성애자들의 항쟁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조직되어 전세계로 파급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진지어지고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구성론이 등장해 있었는데, 퀴어이론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이론에 기대 그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젠더 정체성과 이성애/동성애 이분법을 부정하는 버틀러의 수행적 젠더이론이 등장하면서 퀴어이론은 더 정교화된다.⁸⁾

알토스-리드와 리사 이셔우드(Lisa Isherwood)는 퀴어이론이 신학적 실천을 결정적으로 불안정화시키는 스타일과 질문을 제공해 왔다면서 그것의 세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즉 섹슈얼리티의 구성에 대한 강조, 어떤 성찰에서도 필요한 복수성이란 요소 그리고 성적 정체성의 양가성 혹은 모호성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신학은 이미 주어진 것, 유일신론, 그리고 이성애규범성이란 메타 내러티브의 권위적 실행해 의해 조작돼 온 것이므로 퀴어이론이 신학에 던지는 도전은 실로 전복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퀴어이론은 기독교 이성애규범성에 의해 가장 주변화 돼 있던 사람들, 조직의 제도적 형태들 뿐 아니라 지식도 세상에 등장시켰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연애와 친구하기(befriending), 관계의 구조들이 논의됐으며 신에 대한 상상도 달라지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퀴어신학은 신학의 성적 구성을 문제로 삼는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퀴어신학은 신학에서 이성애적 인식론과 전제들을 해체시키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억압된 신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퀴어신학은 “주변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열정”(passion for the marginalized)과 함께 하는 성적 신학(sexual theology)이다.⁹⁾ 또한 “잡석들(rubble)로부터, 말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남겨진 것들로부터” 시작된 신학이다.¹⁰⁾ 그리고 사람들 각자의 구체적 성적 욕망과 삶에 기반을 둔 “일인칭 신학”(first person theology)이기도 하다. 퀴어신학이 21세기 신학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들 중의 하나는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관계들이 신학의 중요한 이슈들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적 신학(totalitarian theology)을 무너뜨리는 경험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퀴어신학은 교회 전통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통들을 퀴어하게 하는(queering) 과정에서 그것들이 거꾸로 서게 될 수도 있다.¹¹⁾ 전통들을 퀴어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8) 이상 간략한 역사적 소개는 다음 글의 일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Laurel C. Schneider and Carolyn Roncolato, "Queer Theologies," *Religion Compass*, Vol. 6, No.1, 2012, pp. 2-4, 7.

9) Marcella Althaus-Reid and Lisa Isherwood, "Thinking Theology and Queer Theory,"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15, No.3, 2007, pp. 307-308.

10) Laurel C. Schneider and Carolyn Roncolato, *op.cit.*, p. 7.

11) Marcella Althaus-Reid, *The Queer God*. London: Routledge, 2003, p. 8.

중 하나는 성경을 퀴어 해석학(queer hermeneutics)으로 읽는 것이다.¹²⁾

퀴어신학의 퀴어함은 알토스-리드가 제시한 양성/그리스도(Bi/Christ)의 이미지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양성/그리스도는 이성애자도, 게이나 레즈비언도, 혹은 트랜스젠더나 그 외의 무수한 성적 존재들도 다 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베타적이지 않으며,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위치해 있다. 일례로 그리스도는 다른 여성을 꼭 껴안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양성/그리스도는 이분법적 경계의 밖에 있는 더 큰 그리스도(larger Christ)이고 폴 리쾨르가 상정을 정의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새로운 상정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양성/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전통적 그리스도는 단조롭기 그지없는 모노/그리스도(Mono/Christ)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의 진정한 부활은 욕망을 가진 양성/그리스도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엘리자베스 스튜어트(Elizabeth Stuart)는 퀴어신학의 독특한 특징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퀴어신학은 실체의 형이상학을 거부한다. 젠더와 성적 정체성들은 해체되는데 그 해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세례적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퀴어신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이 퀴어이론이 발명되기 전부터 2천년 동안 퀴어한 것이었으며 이는 특히 예수의 몸과 삼위일체의 구성에서 두드러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금까지 생산된 퀴어신학의 대부분은 메타담론의 붕괴를 세상을 재-주술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만약 섹슈얼리티가 불안정하다면 모든 ‘현실’도 그러하고, 해방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거부할 만한 교리들과 이야기들은 다시 믿을 만하게 된다. 넷째, 퀴어신학은, 보통 그것이 섹슈얼리티 이슈와 함께 시작하기는 하지만, 게이와 레즈비언 신학이 섹슈얼리티에 대해 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루는 신학이 아니다. 퀴어신학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학에 대한 것이다. 게이와 레즈비언 신학에서는 섹슈얼리티가 신학을 심문하지만 퀴어신학에서는 신학이 섹슈얼리티를 심문한다. 물론 그 장소는 전통이 자리하는 장소가 아니다. 퀴어신학은 섹슈얼리티의 ‘진실’을 부인하고 섹슈얼리티가 신학을 구성하는 데 충분히 안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¹⁴⁾

그런데 섹슈얼리티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스튜어트의 이러한 입장은 분명히 섹

12) *Ibid.*, p.3.

13) Marcella Althaus-Reid, *Indecent Theology: Theological Perversions in Sex, Gender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pp. 116-121.

14) Elizabeth Stuart, *Gay and Lesbian Theologies*,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03, pp. 102-103.

슈얼리티를 신학의 구성에서 핵심적 요소로 상정하는 알토스-리드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여기서 퀴어신학자들이 어떤 지점들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지 한 측면이 드러난다. 알토스-리드의 신학에서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2000년에 출간되어 퀴어신학의 본격적 시대를 연 그녀의 책 “저속한 신학”(*Indecent Theology*)의 제목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이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녀들을 절저히 비성적 존재로 상정하는 태반발했으며 그녀들의 섹슈얼리티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녀가 말하는 저속한 신학은 페미니스트 해방신학을 비판적으로 이어가는 “성적 정치적 신학”(sexual political theology)이다.¹⁵⁾

한편 퀴어신학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입문서 “급진적 사랑”을 낸 패트릭 청(Patrick S. Cheng)은 퀴어신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퀴어신학은 LGBT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신학을 포괄하는 용어다. 둘째, 퀴어신학은 무엇보다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규범들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위반적’이 되는 신학적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침묵당한 목소리들과 감춰진 관점들을 드러내려 한다. 이의 좋은 예가 알토스-리드의 저속한 신학인데 그녀는 퀴어신학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 아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퀴어신학은 방법론 측면에서 위반적이기 때문에 예언자 담론과도 다르다. 셋째, 퀴어신학은 퀴어이론에 뿌리를 둔 신학으로서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의 이분법적 범주들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그런 본질주의적 범주들 뿐 아니라 삶과 죽음, 신성과 인간 같은 더 근본적인 경계들도 지울 것을 요구한다.¹⁶⁾

이상 살펴보았듯이 퀴어신학은 지금까지 새롭게 등장해온 어떤 신학보다도 전복적이고 급진적이며 포스트모던하다. 그리고 그 급진성이 모든 몸들과 섹슈얼리티들, 젠더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 요구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보편성을 추구하는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 보편성은 고정되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무수한 차이들과 복수성의 인정이라는 맥락에서 과정적으로 추구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바로 비판의 과녁이 되기도 한다. 우선 모든 정체성들과 경계들을 지우려 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신학, 레즈비언/게이 신학 등 정체성과 연대에 바탕한 해방적 운동들을 무력화하게 된다는 비

15) Marcella Althaus-Reid, *Indecent Theology: Theological Perversions in Sex, Gender and Politics*, p. 7.

16) Patrick S. Cheng, *Radical Love*, New York: Seabury Books, 2011, pp. 9-10.

판이 있다.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계속되는 정체성의 전복적인 수행, 하나의 스타일이나 취향으로서의 드랙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퀴어적 실천의 비현실성도 제기된다. 이론 자체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젠더 이분법이 구조화돼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점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론 자체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퀴어이론이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사회적 억압의 요소들- 인종, 계급, 문화, 식민주의 등을 잘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섹슈얼리티 자체가 그러한 사회적 힘들과 함께 얹혀있다는 점에서 이는 퀴어신학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이다.¹⁷⁾ 이런 맥락에서 청은 퀴어신학의 미래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혼종성(hybridity)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퀴어신학이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학이나 교리의 보다 온전한 발전을 위해 갖는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이는 아마도 제라드 라풀린(Gerard Loughlin)이 말하듯이 신학 자체가 퀴어한 것 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신학은 원래 알 수 없는 것(the unknowable), 신비를 알려 하는 이상한(strange) 것이라고 말한다.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이름들 너머에 있는 것을 이름지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할 때 신학은 ‘이상함’을 상실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¹⁹⁾

이 글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퀴어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퀴어신학자들은 점점 더 교리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 즉 창조, 영혼, 신, 육화, 교회 등에 대해서 퀴어이론을 사용해 새로운 관점과 해석들을 내놓고 있으며, 하나의 정통교리(orthodoxy)가 아니라 복수적 교리(polydoxy)를 옹호하고 있다.²⁰⁾ 심지어 중국계 미국인인 청은 퀴어신학이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 전통들로부터도 자원을 빌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은 불교 명상이나 『도덕경』 같은 경전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²¹⁾ 로버트 고스(Robert E. Goss)도 혼종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불교와 위카(Wicca) 등 다른 종교로도 확장하고 있다.²²⁾ 이를 통해 알 수

17) Laurel C. Schneider and Carolyn Roncolato, *op.cit.*, pp. 8-9.

18) Patrick S. Cheng, *op.cit.*, p. 39.

19) Gerard Loughlin, "Introduction: The End of Sex,"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 Loughlin, Malden, MA: Blackwell Pub., 2007, p. 7.

20) Laurel C. Schneider and Carolyn Roncolato, *op.cit.*, p. 10.

21) Patrick S. Cheng, *op.cit.*, p. 40; "Reclaiming Our Traditions, Rituals, and Spaces: Spirituality and the Queer Asian Pacific American Experience," *Spiritus*, Vol. 6, No.2, 2006, p. 236.

있는 것은 퀴어신학이 문화와 종교의 경계도 넘어 다문화, 다종교적인 경향까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II. 퀴어 관점에서 본 관음신앙

앞서 말했듯 관음은 원래 인도에서 남성이었는데 중국으로 건너가 여성으로 성이 바뀌었다. 또 관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조형물과 이미지 등에서 여성, 남성, 양성, 비남비녀 등 다양한 젠더를 구현하고 있다. 퀴어신학에서 그토록 문제시하고 있는 본질적 젠더 정체성과 이분법적 젠더체계를 훌쩍 넘어서 있는 것이다.

중국에 처음 전래됐을 때 남성이었던 관음이 여성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이후였으며 명대 이후 관음은 여신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²³⁾ 관음이 중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²⁴⁾ 불교 교리가 담고 있는 젠더관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상호연기(相互緣起)에 의해 발생하므로 자성(自性)이 없이 공하다는 교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젠더 역시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다. 안옥선은 서양전통이나 유교가 남성과 여성은 이성이나 선성(善性)보다 우선하는 분류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테 반해, 불교의 불성은 젠더 구분이 전제돼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남성 혹은 여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불성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성별에 대한 거부는 성별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성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즉 실체적 성별에 대한 부정과 가변적 성별에 대한 긍정이다.²⁵⁾ 이는 불교사상에서 공이 내포하는 부정성(negativity)이 단순한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자기부정(self-negating)과 자기해체(self-deconstructing)의 움직임들이라는 인식과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22) Robert E. Goss, "Queer Theologies as Transgressive Metaphors: New Paradigms for Hybrid Sexual Theologies,"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Vol. 5, No. 10, 1999, p. 51.

23) Chün-fang Yü,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491.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명숙, 「서구 여신담론과 관음여신의 대안가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p. 162-172.

25) 안옥선, 「불교의 성평등주의」, 『철학과 현실』 46, 철학문화연구소, 2000.

26) Jin Y. Park, "Introduction," *Buddhisms and Deconstructions*, ed. Jin Y. Park,

안옥선은 가변적인 불교의 젠더관을 트랜스젠더 논의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의 핵심적 의미를 “자신에게 주어진/부여된 성(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불교의 대응에 대해 탐색한다. 그녀에 의하면, 대승경전들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변성(變性) 사례를 자주 활용하면서 성별공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²⁷⁾ 그러한 입장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인정 내지는 인권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불교교설은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중국에서 관음이 성전환을 통해 트랜스젠더가 된 것은 경전 안에 있는 변성 사례들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음에게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응신사상도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음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몸을 나투어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불신(佛身)에는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그리고 응신(應身)의 세 가지가 있다. 간단히 말해, 법신은 진여실상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보신은 육신을 갖고 활동하는 법신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신은 범부들도 보게 되는 부처님의 몸이다. 그런데 이 응신사상은 모든 불보살에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음신앙에만 적용되었고 다른 불보살들에서는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하면 관음은 33응신을 나투어 보문시현(普門示現)과 원통무애(圓通無碍)의 자제신력(自在神力)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²⁹⁾ 즉 ‘실제 몸’을 가지고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인데, 그 몸은 신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으며,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 관음의 몸은 신/인간, 여성/남성 이분법을 넘어 자유자재로 구사되는 변화신(變化身)이다. 다이아나 폴(Diana Paul)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 보문품에 관음이 여성으로 응신하는 경우가 7번 있는 것도 관음의 여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된 보문품에는 관음의 응신이 16개 밖에 안되고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⁰⁾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p. 86.

27) 대표적인 것으로 『유마경』의 천녀와 사리불의 변성, 『법화경』 제바달다품의 용녀의 변성이 있다.

28) 안옥선,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

29) 천종환, 「관음신앙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 52.

30) Diana Y. Paul, *Women in Buddhism: Images of the Feminine in the Mahayana Tradi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어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했던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여성화 과정을 거친 관음은 불교의 서구유입과 함께 서구로 이주하게 된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관음은 80년대 중반 이후 인기있는 보살로 부상했는데 그러면서 동아시아와는 매우 다른 사회, 문화, 종교적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들의 해석 망 아래 놓이게 됐다.³¹⁾ 그런데 그 관점들 중의 하나가 트랜스(젠더) 관점이다. 캐스린 베일리(Cathryn Bailey)는 관음을 트랜스 보살(trans bodhisattva)로 설명하면서 관음이 트랜스한 사람들(trans people)의 동일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관음이 그들에게 역사적이고 영적인 전통과 승인의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트랜스 아이콘들에 비해 관음의 이미지가 가지는 최대 강점은 위대한 세계 종교들 중 하나에 속한 신격으로서 역사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랜스한 사람들이 관음에게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인터넷 블로그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트랜스 활동가가 벌이는 운동의 맥락에서 관음이 언급되기도 한다. 베일리는 무시당하고 경멸받아 온 트랜스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비의 상징인 관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도 언급하고 있다.³²⁾

조나단 리(Jonathan H.X. Lee)도 관음의 다중적인 성적 정체성이 경전적, 신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역시 미국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관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한 게이 유로-아메리칸 페이건(pagan)은 자신의 블로그에 “현대에 그녀(관음)는 또한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의 수호자이기도 한데 이는 그녀의 기적적인 젠더 유연성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³³⁾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관음의 트랜스 속성과 다중적인 성/젠더 정체성, 젠더 유연성, 그리고 무한한 자비는 미국사회에서 영적인 성적 소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와 함께 학자들의 관련논문들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에 두고 퀴어신학과 관음신앙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들을 4가지로 정리해 논

251-252.

- 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퀴어 관점의 관음신앙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는 김명숙, 앞의 논문, pp. 207ff. 참조.
- 32) Cathryn Bailey, “Embracing the Icon: The Feminist Potential of the Trans Bodhisattva, Kuan Yin,” *Hypatia*, Vol. 24, No. 3, 2009, pp. 180-184. 이 글에서 저자는 ‘트랜스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의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퀴어와 상통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 33) Jonathan H.X. Lee, “Avalokiteśvara and Compassion: Faith and Practice for Harmonious Living beyond Asian/Asian American Communities,” <http://www.undv.org/vesak2011/panel2/12LeeFINAL.pdf>, 2011, p. 2, 6.

의하면서 ‘퀴어 보살’로서의 관음의 가능성은 가능해 본다.

IV. ‘퀴어 보살’로서의 관음의 가능성

1. 몸과 응신성

퀴어신학은 섹슈얼리티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신학의 출발점이자 대상, 그리고 방법이 된다. 때문에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신(God)보다는 그것의 육화(incarnation)로서의 그리스도를 신학의 중심에 둔다. 퀴어신학은 “육화의 급진적 성격을 출발점으로 삼는 떠오르고 있는 신학 분야”다.³⁴⁾ 달리 말해 육화의 신학(incarnational theology)이자 몸의 신학(body theology)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이같은 성격은 핵심적 기독교 텍스트들과 서사들의 해석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퀴어신학의 근거는 신성이 하늘을 떠나 완전히 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살에 거주하는 신은 변화와 관련되며, 역동적인 생명력으로서의 신성은 다양성 속에서 분출된다. 그 에너지는 법이나 규정들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신성한 것으로서의 살을 받아들이고 그 살을 통해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결코 정상적(normal)일 수 없다. 그리고 살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퀴어신학에서는 “유전자가 조작된, 신의 형이상학적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쇠똥과 벼룩들 사이에서 몸에 피가 묻은 채 태어난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다. 신성은 모든 인간됨을 제거한 휘황한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이고(earthy), 지저분하고(messy), 부분적(partial)인 데 있다. 몸의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결코 어떤 경계를 안에 다 담겨질 수 없으므로 육화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³⁶⁾ 퀴어신학에서 육화는 역사적인 예수의 몸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몸들로 확장된다.

양천은 신성과 인간 주체성에 대한 류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의 이론에

34) Marcella Althaus-Reid and Lisa Isherwood, *op.cit.*, p. 309.

35) Robert Shore-Goss, “Dis/Grace-full Incarnation and the Dis/Grace-full Church: Marcella Althaus-Reid’s Vision of Radical Inclusivity,” *Dancing Theology in Fetish Boots: Essays in Honour of Marcella Althaus-Reid*, ed. L. Isherwood and M. Jordan, London: SCM Press, 2010, p. 3.

36) Marcella Althaus-Reid and Lisa Isherwood, *op.cit.*, pp. 309-310.

기대 퀴어한 육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 즉 특수한 몸과 맥락과 섹슈얼리티를 지닌 예수가 신성하다는 생각은 다른 모든 몸들 역시 신성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차이와 유동성을 축하하는 매우 퀴어한 육화다.³⁷⁾ 퀴어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기존 신학이 표상해 온 탈육화된 몸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완전히 육화된,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몸이다. 육화의 이야기들은 성적인 이야기들이기도 한 것이다. “체화된 그리스도는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처럼 다양”한 퀴어한 그리스도이며 “퀴어 그리스도론(queer Christology)은 육화의 영광스럽게 열정적이고 난잡한 사랑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⁸⁾

챙 역시 이상의 논의들과 비슷한 관점에서 LGBT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급진적 사랑의 체현”(embodiment of radical love)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³⁹⁾ 그런데 이같은 표현은 흔히 자비의 체현(embodiment of compassion)으로 얘기되는 관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⁴⁰⁾ 응신사상에서 나타나듯이 관음의 자비는 추상적인 교리나 덕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취해 구제행에 나서는 체현된 자비(embodied compassion)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음의 응신은 진신(眞身) 혹은 법신보다 하위개념이 아니다. 관음신앙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내놓은 천태지의는 『관음현의』에서 법신과 응신이 모두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몸이라며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⁴¹⁾

그리고 관음의 응신은 경전에 나오는 숫자나 현존하는 도상들, 관련설화들에 제한된 응신이 아니다. 관음의 자비가 무한한 그만큼 구제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응신들도 무한하기 때문이다. 관음의 ‘보문시현’은 관음이 중생을 교화하고자 나타내는 모습이 결림없이 자유자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태지의는 보문품에서 거론되는 몸은 33가지이지만 이는 삼계에 포함되는 일체중생이 다 담겨있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⁴²⁾ 또 고려시대 혜영이 찬술한 『백의해』(白衣解)의 관음예문에는 관음이 “삼십이상(三十二相)으로 두루 몸을 장엄하고 천백억의 화신으로” 항상 고난을 구제한다고 쓰여있다.⁴³⁾

37) Grace Jantzen, *op.cit.*, p. 279.

38) Lisa Isherwood, “Queering Christ: Outrageous Acts and Theological Rebellions,” *Literature and Theology*, Vol.15, No.3, 2001, p. 260.

39) Patrick S. Cheng, *Radical Love*, p. 78. 이때 ‘급진적 사랑’은 ‘하나님’(God)을 지칭한다.

40) Chün-fang Yü, *op.cit.*, p. 3.

41) 전운련, 「천태지의의 관세음보살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41.

42) 앞의 논문, p. 45.

이같은 관음의 자유자재한 응신은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체현하는 퀘어한 그리스도와 통한다. 둘 다 어떤 몸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몸의 차원에서 신성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성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통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겠지만 불교의 신격인 관음의 경우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2. 신성/인간의 이분법 넘어서기

퀴어신학의 파격성 혹은 전복성은 퀘어 그리스도론을 통해 신성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는 테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퀘어신학은 섹슈얼리티나 젠더의 이분법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간의 이분법도 넘어서고자 한다. 챙은 신의 급진적 사랑은 경계를 넘는 극단적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소되는 여러 경계들 중 신과 인간의 경계를 우선 듦다. 예수의 육화, 사목,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등의 서사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 안에서 영원히 해소되는가를 보여준다. 즉 육화와 기적들은 신성이 인간의 영역으로 건너오는 것으로, 부활과 승천은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신-인간(God-human)으로서의 예수는 완전히 신성하며 완전히 인간적이므로 신과 인간은 더 이상 상호배타적인 범주들이 아니다.⁴⁴⁾

얀챈은 더 과감하다. 그녀는 이리가라이에 기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를 “신성하게 되기”(becoming divine)로 보면서 구원이라는 개념도 비판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적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에게 신성하게 되기란 번성하기(fLOURISHING),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되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는 신의 개념과 위상도 바뀔 수 밖에 없다. 얀챈은 유일신론을 스트레이트한 기독교의 경직된 구조를 보호하는 장치로 보고 비판하면서, 신성을 ‘과정’과 ‘되기’(becoming)의 관점에서, 우리 안, 우리들 사이 그리고 우리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의 에너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성은 다중적 형태(multiform)로서 우리의 ‘되기’의 지평이 되며 세상을 밖으

43) 천종환, 앞의 논문, p. 57.

44) Patrick S. Cheng, *op.cit.*, p. 79.

로부터 구성하지 않는다. 얀첸의 퀴어신학은 초월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 환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본다.⁴⁵⁾

얀첸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신성의 내재적 측면은 “인간과 신성이 함께 하는 춤”(human/divine dance)이라는 알토스-리드와 이셔우드의 표현에서 더 생동감 있게 변화하며 퀴어해진다. 이들은 육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학처럼 인간과 신성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는 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퀴어신학은 형이상학과 그것이 만들어낸 편안한 세계 너머로 움직이면서 신학적 토대들을 혼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퀴어신학이 반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알토스-리드와 이셔우드에 의하면 본래 육화한 신(God incarnate)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고정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범주들이다. 신성에서 살로, 살과 피에서 빛과 포도주로, 인간에서 우주적 영(spirit)으로 변화하면서 구속적 실천(redemptive praxis)의 완전한 육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⁴⁶⁾ 신학적 형이상학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부정은 세상과 분리된 초월적 신성에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급진적인 것이다.

불교는 모든 인간을 불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데서 드러나듯 교리 자체가 신성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 있다. 특히 관음은 보살로서 중생과 부처 사이에 위치한다. 존재적 성격 자체가 성과 속의 연결공간에 자리하는 것이다. 관음은 “인간계와 천상계, 중생과 부처의 매개자로서의 신격”이다.⁴⁷⁾ 『관음현의』에는 관음에 대해 “영원하지 않은 번뇌의 세계에 거치하여 소리 없이 진속(眞俗)이 둘이 아닌 현지(玄旨)에 들어간다”고 쓰여 있다.⁴⁸⁾ 그리고 예수를 통한 육화가 성속 이분법을 해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듯 관음 특유의 응신능력 또한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님이 예수와 분리될 수 없듯이 친태지의의 관음사상에서 관음의 응신은 법신과 다르지 않다. 즉 관세음보살은 “원용하고 청정한 진여법계가 바탕이 되어..... 걸림없이 자제로이 방편의 몸을 나타내어 머무르는 바 없는 교화를 하기” 때문이다.⁴⁹⁾

퀴어한 그리스도와 관음은 비록 신성의 성격과 구원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또 ‘몸’의 신학적, 교리적 함의가 다를지라도, 육화와 응신을 통해 신과 인간의 경계

45) Grace Jantzen,*op.cit.*, pp. 279-280, 284.

46) Marcella Althaus-Reid and Lisa Isherwood, *op.cit.*, pp. 309-310.

47) 이효원, 「한국의 관음신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43.

48) 전운련, 앞의 논문, p. 38.

49) 앞의 논문, p. 38.

를 위반한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성의 부재는 본질의 해체와 차이들과 다양성, 복수성의 포용으로 이어진다.

3. 본질과 경계를 해체하기

지금까지 소개했듯 퀴어신학은 신성/인간의 이분법,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이분법을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계들도 거부하고 가로지른다. 챙은 예수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경계들을 지속적으로 와해시켰다고 해석한다. 그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졌고, 사회적 추방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⁵⁰⁾ 이같은 경계 가로지르기는 고정된 정체성, 본질주의에 대한 거부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퀴어신학은 “정체성 이후의 신학”(theology after identity)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⁵¹⁾

라플린은 퀴어를 “본질 없는 정체성”(identity without an essence)이라고 정의한 데이빗 헬퍼린(David Halperin)에 의거해, 퀴어이론이 자신들과 타인들을 정체성에 의해 규정된 것과 다른 성격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봉사한다고 설명한다. 퀴어는 정의하기(defining)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취함으로써 드러난다. 그 결과 차이와 분기(divergence)가 발생하면서 규범성이 불안정해지고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퀴어신학은 이성애가부장제적 기독교의 규범성을 흔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롭고 온전한 미래, 기독교인들의 삶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올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그것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예수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퀴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본질 없는 정체성”으로서의 퀴어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플린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여성이 되는 것(becoming Christian or woman)처럼 퀴어가 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지복(beatitude)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⁵²⁾ 그런데 이러한 라플린의 생각은 “자아의 미학”(aesthetics of self)을 말하

50) Patrick S. Cheng, *op.cit.*, pp. 79-80.

51) Gerard Loughlin, “What Is Queer? Theology after Identity,”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Vol.14, No.2, 2008.

52) *Ibid.*, pp. 149-150.

는 얀첸의 생각과도 통한다. 얀첸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존재할 자유, 스스로의 퀴어한 스타일에 따라 자신을 창조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 지식권력에 의해 주조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최상의 가능성들을 실현하려 노력하는 것은 자유와 아름다움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자기-창조(self-creation)가 가능해진다. 얀첸에게 자아의 미학은 모든 퀴어한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자기-창조의 꾸준한 작업을 의미한다.⁵³⁾ 퀴어신학이 본질주의와 정체성, 경계들을 거부하며 퀴어가 되기, 퀴어한 자기창조를 강조하는 것은 무질서한 방종과 자기탐닉적 쾌락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분법에 근거한 차별과 위계를 넘어 모든 주변적 소수자들을 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서우드가 말하듯 "퀴어한 기독교인의 몸은 급진적 평등의 위반적 기표"인 것이다.⁵⁴⁾ 이런 점에서 퀴어신학은 가장 급진적인 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앞서 말했듯 관음은 다중적 젠더를 구현하고 있는 퀴어한 신격이다. 헬퍼린이 말한 "본질 없는 정체성"은 그대로 "성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불교의 젠더관, 관음의 젠더와 상통한다. 그런데 관음의 무한한 응신력은 젠더의 경계만 넘는 것이 아니다. 『법화경』 보문풀에 나와있는 응신사례들을 보면, 관음은 계층간의 차별(법왕, 장자, 기사 등), 종교간의 차별(불신, 바라문신 등), 수행의 우열함(벽지불신, 성문신 등), 남녀의 차별(동남 동녀 등), 장유의 순서(우바새, 동남) 등을 구별함이 없이 중생의 현장에서 제도한다고 되어 있다.⁵⁵⁾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무수한 응신이 가능한 관음은 이처럼 모든 이분법들, 범주들과 경계들을 아무 걸림없이 자유롭게 넘나든다.

베일리는 관음의 젠더가 단순히 양성적이거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혹은 둘 사이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본질주의의 토대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관음은 또 젠더만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적 계급의 측면에서도 경계를 허문다. 따라서 만약 관음의 이야기가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이パーテ스트(hypertext)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관음은 범주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트랜스 속성을 지닌 매우 현대적인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일리에 의하면 관음은 "가장 퀴어한 감각에서 순수본질적인 트랜스 아이콘"이다.⁵⁶⁾ 이러한 표현은 인간

53) Grace Jantzen, *op.cit.*, pp. 281-282.

54) Lisa Isherwood, *op.cit.*, p. 252.

55) 김선근, 「*Bhakti-yoga* 패러다임으로 본 『法華經』 관음신앙」, 『인도철학』 6, 인도철학회, 1996, p. 56.

56) Cathryn Bailey, *op.cit.*, pp. 192-193.

실존의 다양성과 다 관계하는 퀴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관음은 이처럼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고정된 경계안에 잡히지 않고, 통일적(unified) 인식이 불가능한 퀴어한 신격이다. 관음은 “천백억의 화신으로” 무수한 차이들, 주변화된 소수자들의 차이들도 다 드러낼 수 있는데 이는 또 일체중생의 구제라는 무한한 통합의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즉 구제의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문품에서 관음이 구제하는 중생에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관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대상은 선택적이거나 보복 또는 징벌의 차원에 있지 않”는 것이다.⁵⁷⁾ 이는 관음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한 요인이고 하다. 관음은 미국에서 심판적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등돌리거나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보수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관음은 기독교 교회가 죄인으로 정죄하는 성적 소수자들도 무한한 자비로 품을 수 있는데, 퀴어 보살로서의 관음의 가능성은 이러한 급진적 포용성, 통합성에서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4. 현세적 고통에 대한 맥락적 접근

퀴어신학은 그 뿌리에 해방신학이 있는 테서 알 수 있듯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성적 소수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런데 퀴어신학자들에게 섹슈얼리티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섹슈얼리티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제들과도 관련된다. “퀴어신학에는 섹슈얼리티 이상의 것이 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에는 섹스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⁹⁾ 또 그들이 주목하고 말하는 고통은 보편적, 개념적 고통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상황과 맥락, 특수성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통들, 몸의 고통들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도시 민중 여성들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한 알토스-리드의 경우에서 두드러진다. 그녀는 현실이야말로 진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퀴어신학은 급진 정치

57) 이지관, 「경설상의 관음신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엮음, 『韓國觀音信仰』,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p. 47.

58) Jeff Wilson, “Deeply Female and Universally Human’: The Rise of Kuan-Yin Worship in America,”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Vol. 23, No. 3, 2008, p. 300.

59) Marcella Althaus-Reid, “Outing Theology: Thinking Christianity out of the Church Closet,” p. 67.

적 비판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신학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제국주의 혹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이다. 시장은 ‘우리 영혼의 식민화과정’을 통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장의 뿌리에는 성적 철학(sexual philosophy)이 있다. 즉 이성애가부장제 경제(heteropatriarchal economics)다.⁶⁰⁾ 섹슈얼리티는 경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서우드도 기독교 우파들이 이성애 결혼의 강조를 통해 진전된 자본주의 사회를 강력하게 유지하려 한다고 본다. 그들이 옹호하는 기독교 가정은 백인 우파들에 의한 경제적 지배의 토대이자 차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그녀에게 섹슈얼리티는 정의를 구하는 힘이다. 퀴어 섹스는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전통 기독교 윤리와 달리, 경계들을 부수고 폐락을 지향하는 섹스로서 성적 충족의 윤리만이 아니라 공정무역의 윤리도 요구한다. 착취적인 경제정책들과 의료혜택에 대한 제한적 접근 때문에 못먹고 쇠약해진 몸은 폐락으로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화된 그리스도는 천국에의 약속을 빌미로 그러한 상황과 부정의에 눈 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퀴어 그리스도는 체화된 삶을 축하하며, 이는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⁶¹⁾ 이 때 퀴어 그리스도의 다양하고 온전한 육화는 그가 요구하는 정의가 맥락적, 구체적이며 인간의 다양한 삶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육화된 퀴어 그리스도, 체화된 삶을 축하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그리스도는 응신이라는 방편을 통해 중생들의 현세적 고통을 구제하는 관음, 구고구난(救苦救難)의 자비의 관음과 상당부분 통한다. 비록 ‘정의’와 ‘자비’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정의 역시 신성의 차원에 있으므로 세속적 정의와는 다른 차원일 것이다. 보문품에 나오는 관음의 구제행은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겸난(劍難), 옥난(獄難), 적난(賊難) 등 현실적인 고통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관음의 응신은 그녀/그를 찾는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무수히 변할 수 있으므로 그녀/그가 구제하는 고통들도 다 맥락적이고 구체적이다. 어떤 종류의 특수한 고통이든 고통의 구제를 요청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관음은 걸림 없이 응신해 구제할 수 있다.

60) *Ibid.*, pp. 66–67.

61) Lisa Isherwood, *op.cit.*, pp. 257–260.

V. 결론

지금까지 퀴어신학과 보문품에 근거한 관음신앙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양자는 육화와 응신을 통해 몸과 몸을 통한 다양한 삶의 현실을 전면에 위치시킨다는 점, 신성과 인간의 이분법을 포함해 모든 고정된 경계들과 범주들을 해체하고 본질주의적 정체성의 토대를 허문다는 점, 내세의 행복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고통구제에 우선적 목적이 있다는 점 등에서 상통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상통한다는 것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말했듯 기독교 신학과 불교 교학은 신성이나 세계관, 인간관, 구원론 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무리 퀴어하다 해도 퀴어 그리스도와 관음의 신성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양자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이다. 퀴어신학에서 몸과 섹슈얼리티는 신학의 출발점이자 토대로서 축하의 대상이고 맥락의 장소다. 퀴어 그리스도는 이러한 맥락에 있다. 그러나 관음신앙에서 관음의 응신들은 구제를 위한 ‘방편의 몸’에 그친다. 또 조형물이든 도상이든 대부분의 관음상은 섹슈얼리티가 결여된 비성적(asexual) 형상들이다. 불교 교학 전반이 드러내는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관음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퀴어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과 똑같이 육화된 성적인 몸이지만 관음의 응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취할 때도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두 발은 인간처럼 땅 위에 확실히 닿아있지 않다. 퀴어신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지상적이고, 지저분하고, 부분적이지” 않다. 퀴어신학의 관점에서는 더 온전한 육화가 필요한 것이다.

퀴어신학이 전통 기독교 신학에 대해 맡고 있는 혁신적 역할을 관음신앙이 전통 불교와의 관계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음 응신의 온전한 육화, 예를 들어 성적인 여성, 성적인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로서의 관음 혹은 가난한 양성애자 여성으로서의 관음 등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너무 급진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관음신앙 내지 한국불교 전반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바꿔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영적 욕구에 맞게 새로이 ‘응신’하기 위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종교는 점점 더 개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govern) 맥락에서 기능하고” 있다.⁶²⁾ 서구의 불교들

62) Sally R. Munt and Sharon E. Smith, “Angels and the Dragon King’s Daughter: Gender, Sexuality in Western Buddhist New Religious Movements,”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은 이미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던지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으며,⁶³⁾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대표적인 불교 신흥종단들 중 하나인 영국 일련종 창가학회(SGI-UK)는 LGBTQ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들을 돋는 활동들도 하고 있다.⁶⁴⁾ 점점 더 다양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동은 이제 어떤 종교도 섹스/젠더,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도전들을 피해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신학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퀴어신학 역시 그러하다.

주제어: 퀴어신학, 관음신앙, 본질주의적 이분법, 이성애가부장제, 퀴어 그리스도, 퀴어보살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Vol. 16, No. 3, 2010, p. 234.

- 63) 한 예로 다음 책 참조. Winston Leyland, *Queer Dharma: Voices of Gay Buddhists*, San Francisco: Gay Sunshine Press, 1998/2000.
- 64) Sally R. Munt and Sharon E. Smith, *op.cit.*, pp. 250-251. 이 글에서 저자들은 불교에서 섹스와 젠더는 이성애 경제(heterosexual economy)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불교가 이성애가부장제 체계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한다. pp. 231-232.

참고문헌

- 김명숙, 「서구 여신담론과 관음여신의 대안가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선근, 「Bhakti-yoga 패러다임으로 본 『法華經』 관음신앙」, 『인도철학』 6, 인도철학회, 1996.
- 안옥선, 「불교의 성평등주의」, 『철학과 현실』 46, 철학문화연구소, 2000.
- _____.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
- 이지관, 「경설상의 관음신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엮음, 『韓國觀音信仰』,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 이효원, 「한국의 관음신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전운련, 「천태지의의 관세음보살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천종환, 「관음신앙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Althaus-Reid, Marcella, *Indecent Theology: Theological Perversions in Sex, Gender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 _____, "Outing Theology: Thinking Christianity out of the Church Close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9, No.27, 2001.
- _____, *The Queer God*, London: Routledge, 2003.
- _____, "The Bi/girl Writings: From Feminist Theology to Queer theology," *Post-Christian Feminisms*, eds. L. Isherwood and K. McPhillips, Aldershot, England: Ashgate, 2008.
- Althaus-Reid, Marcella and Lisa Isherwood, "Thinking Theology and Queer Theory,"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15, No.3, 2007.
- Bailey, Cathryn, "Embracing the Icon: The Feminist Potential of the Trans Bodhisattva, Kuan Yin," *Hypatia*, Vol. 24, No. 3, 2009.
- Chen, Jin-Shiow, "A Vision of Multiple Genders: Cross-cultural Learning in Asian Countries from Images of Kuan Yin and "Bishonen"," *Journal of Cultural Research in Art Education*, Vol. 25, 2007.
- Cheng, Patrick S., "Reclaiming Our Traditions, Rituals, and Spaces: Spirituality

- and the Queer Asian Pacific American Experience," *Spiritus*, Vol. 6, No.2, 2006.
- _____, *Radical Love*, New York: Seabury Books, 2011.
- Goss, Robert E., "Queer Theologies as Transgressive Metaphors: New Paradigms for Hybrid Sexual Theologies,"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Vol. 5, No. 10, 1999.
- Isherwood, Lisa, "Queering Christ: Outrageous Acts and Theological Rebellions," *Literature and Theology*, Vol.15, No.3, 2001.
- Jantzen, Grace, "Contours of a Queer Theology," *Literature and Theology*, Vol.15, No.3, 2001.
- Lee, Jonathan H.X., "Avalokiteśvara and Compassion: Faith and Practice for Harmonious Living beyond Asian/Asian American Communities," <http://www.undv.org/vesak2011/panel2/12LeeFINAL.pdf>, 2011.
- Leyland, Winston, *Queer Dharma: Voices of Gay Buddhists*, San Francisco: Gay Sunshine Press, 1998/2000.
- Loughlin, Gerard, "Introduction: The End of Sex,"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 Loughlin, Malden, MA: Blackwell Pub., 2007.
- _____, "What Is Queer? Theology after Identity,"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Vol.14, No.2, 2008.
- Lowe, Mary E., "Gay, Lesbian, and Queer Theologies: Origins, Contributions, and Challenge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48, No.1, 2009.
- Munt, Sally R. and Sharon E. Smith, "Angels and the Dragon King's Daughter: Gender, Sexuality in Western Buddhist New Religious Movements," *Theology & Sexuali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 Sexuality*, Vol. 16, No. 3, 2010.
- Park, Jin Y., "Introduction," *Buddhisms and Deconstructions*, ed. Jin Y. Park, Lanham,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 Paul, Diana Y., *Women in Buddhism: Images of the Feminine in the Mahayana Tradi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Schneider, Laurel C. and Carolyn Roncolato, "Queer Theologies," *Religion Compass*, Vol. 6, No.1, 2012.
- Shore-Goss, Robert, "Dis/Grace-full Incarnation and the Dis/Grace-full Church: Marcella Althaus-Reid's Vision of Radical Inclusivity," *Dancing Theology in Fetish Boots: Essays in Honour of Macella Althaus-Reid*, ed. L. Isherwood and M. Jordan, London: Scm Press, 2010.
- Stuart, Elizabeth, *Gay and Lesbian Theologies*,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03.
- Wilson, Jeff, "'Deeply Female and Universally Human': The Rise of Kuan-Yin Worship in America,"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Vol. 23, No. 3, 2008.
- Yü, Chün-fang,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Abstract>

Queer Theology and Kuan-Yin Devotion

Myoung Sook Kim(The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Kuan-yin devotion from a queer perspective to suggest its innovative possibilities to transform traditional Buddhism with reference to queer theology. The author argues that Kuan-yin as a queer bodhisattva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Buddhism in the same way as the queer Christ transforms Christianity. Four conceptual themes for the queer Bodhisattva Kuan-yin are suggested.

First, body and incarnationality. Queer theology is an incarnated, body theology which claims that the divine left the heaven and entered flesh once and for all. Christ is seen as fully embodied and to celebrate embodied life. Kuan-yin has been regarded as the embodiment of compassion and her/his infinite capability of innumerable incarnations is well known as one of her/his attributes. Second, crossing divine/human boundaries. Just as the queer Christ, the God-human, dissolv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vine and the human, so Kuan-yin, a bodhisattva who exists between Buddha and sentient beings, is always connected to both the divine and the human.

Third, deconstructing essences and boundaries. Queer theology is called as 'theology after identity', queer is 'an identity without an essence'. Queer theology requires the erasing of the boundaries of essentialist categories, especially those of gender and sexuality. Kuan-yin manifests multigenders, but they are without essenses according to the Buddhist views on gender. And as trans icon Kuan-yin challenges any boundaries of sex and gender, embracing sexual minorities. Fourth, contextual approach to worldly sufferings. The first objective of Queer

theology, rooted in theologies of liberation, is to liberate LGBTQ people from social oppression and exclusion. It requires attention to the concrete, detailed stories of individual people in their everyday lives, and to the context of their varied pain and suffering. This is why queer theology should go along with radical political critique. As queer embodied Christ is as varied as those who inhabit bodies, he can reveal every context of varied pain and suffering. Kuan-yin, most of all worshipped for her/his compassionate salvation from suffering, also can do the same with her/his infinite capability of innumerable incar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and situations of supplicants.

Key words: queer theology, Kuan-yin devotion, essentialist dichotomy, heteropatriarchy, queer Christ, queer Bodhisattva